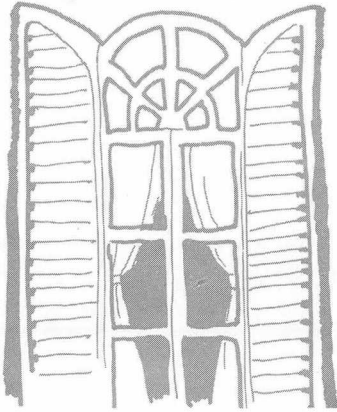


마음의 창을 열고



설 등 섭
(가축위생연구소장)

지난 한해는 우리 양돈인에게는 실로 축복받은 한해였다.

그러나,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무엇인가 썩쓰레한 뒷맛이 남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은 웬일일까? 지난해 10월 한달간 양돈사료 생산실적을 보면, 21만7천톤으로 1985년도 같은 달에 비하여 27%가 증가된 것에 불과하지만, 세부 품목별로 보면 갓난돼지 사료가 무려 45%, 임신돈 및 포유돈 사료가 46%나 증가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금년 중반기쯤에는 또다시 돼지의 과잉생산으로 돼지값 하락이라는 곤욕을 다시 한번 치르게 되지 않을까 하고 심히 우려한 나머지 지난 11월 19일에 양돈인 2,000여명이 63빌딩 회의장에 모여 전국 양돈인 생산조절 결의대회를 갖기에 이르르게 되지 않았나 한다.

이 대회를 치르고 난 뒤에 양돈가들이 과연 생산조절을 위하여 애쓴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는 아직도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 기회에 마음의 창을 열고 솔직한 생각을 털어 놓고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사료의 경우 갓난 돼지의 육성비육사료가 1985년도 하반기부터 1986년도 상반기까지 별로 증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냉정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최근에 와서 악성전염병인 돼지콜레라는 예방접종을 철저히 해서 그런대로 피해가 극소화된 편이지만, 갓난 새끼돼지를 주로 많이 죽이는 돼지전염성위장염에 의한 피해는 여전히 감소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다고 본다.

과연 우리 양돈인들이 돼지전염성위장염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한 예방약 접종에 관심을 쏟고 있는지 묻고 싶다. 이 예방약은 임신돈에 2회접종해야만 비로소 거기서 생산되는 새끼돼지가 이행 면역항체를 받아서 전염성위장염에 대해서 방어능력을 갖게 된다.

“

양돈인들은 좀더 마음의 창을 서로 열고 자기 농장의 정확한 생산물 수량과 질병피해 등을 협회에 알려 양돈산업의 안정화에 힘써야 한다.

”

양돈산업의 안정은 우리 양돈인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제 질병발생이나 과잉사육으로 인한 양돈불황은 양돈인 스스로가 철저히 예방하고, 사육두수를 조절하면, 앞으로 예상되는 양돈산업의 어려움은 쉽게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양돈인 여러분들이 지난 11월 19일에 결의한 돼지 사육두수의 감축에 어느 정도 협조하고 있는지 한번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결의는 구호로 끝나고 지난 불황 때처럼 서로 줄이기만을 기다리는 눈치작전이 다시 돼지불황을 몰고 올 자 심히 걱정이 된다.

지난해 상·중반기와 같이 높은 생돈시세는 비정상적인 육돈출하량 부족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과잉사육 유혹을 받아서 사육규모를 증가시키거나 부랴부랴 시작한 양돈농가는 스스로 불황을 자초하는 결과가 된다. 과거에도 몇차례 불황을 겪어 왔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면서도 서로 책임을 밀고, 자기는 줄이지 않고 요행을 바라는 양돈인은 없는지 걱정스럽다.

이제, 우리 양돈인들도 모두 과거에 충분한 체험을 바탕으로 판단을 잘해서 자기가 사육하고 있는 번식돈을 좀 줄여야 하겠다. 또, 돼지콜레라, 돼지전염성위장염, 일본뇌염, 파보 등에 대한 예방약을 철저히 접종해 적정두수의 새끼돼지를 희생없이 잘 육성하여 출하하는데 최선을 다하면 양돈산업은 틀림없이 안정될 것이다. 악성질병은 철저한 예방약 접종으로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고, 자기농장에 국한된 이유전후의 특수한 설사증은 예방약 제조회사로 하여금 지역예방약(Local vaccine- 그 농장에서만 분리되는 균독주로만 만든—그 농장의 돼지설사에만 효과가 있음)을 농장주와 상의해서 제조 공급토록 되어 있어, 인위적으로 시장수요에 따라 알맞는 비육돈 공급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이제, 우리 양돈업계도 방역과 위생문제에 좀더 큰 관심을 갖는다면, 돼지 사육기술은 거의 선진국 수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양돈생산물의 유통조절도 우리 양돈인의 손으로 할 수 있는 실력을 갖게 되었다고 본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부와 협조해서 해 나가느냐 하는 실천과제만 남아 있을 뿐이다. 더욱 원활한 양돈생산물의 유통조절은 우리 양돈인들이 좀 더 마음의 창을 서로 열어 놓고 자기 농장에서 생산되는 양돈생산물의 정확한 수량과 질병피해를 숨김없이 생산단체에 알려주고 생산조절에 기탄없이 협조해야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양돈협회는 생산자 단체이기 때문에 생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생산자가 생산한 생돈을 적정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유통시장에 과감하게 뛰어 들어 양돈경기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한다. 양돈생산은 협회가 하고 가격안정은 정부가 해주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보아야 하고, 생산자단체 스스로가 가격안정을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깊이 새겨야 하며 질병예방, 사육기술 개발, 생산물 유통까지 모두 협회가 할 수 있도록 강력한 힘을 주는데 최대의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비로소 여러분들의 권익이 보장될 것으로 믿는다. ■